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 실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공식 출범 정책재정 현안 민관 공동 대응... 미래 비전사업 실현을 제고 기대

전남 함평군이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사업(이하 미래 비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미래 비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실행율을 높이기 위해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체는 전라남도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함평군이 행정적으로 직접 제기하기 어려운 정책·재정적 애로사항을 민간 부문에서 공론화하고 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함평군은 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

책 추진 과정 전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부시장 등 행정위원 11명, 군의원 2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출범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간의 미래 비전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가 설명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위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행율과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평군은 "민관 합동 협의체를 계기로 협의체 위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폭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며 실현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관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식품위생 영업자 및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등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 검사 및 진단서 발급은 군 보건소에서 3천 원에 할 수 있지만

무안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 지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2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영업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19일 건강진단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4개소(△무안종합병원 △남악온누리내과의원 △남악복음내과의

원 △남악하나내과의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곳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 3천 원에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무안군 관내 식품위생업소 2천 7백여 개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이며

해당 사업은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1,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지원받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도도 지속될 예정이다.

나상현 보건행정과장은 "건강진단서 발급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하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안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영암 귀농·귀촌·창업·주거 빈집은행에서 설계하세요

온라인 플랫폼 빈집은행 운영... 매물에서 지원사업까지 망라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3일부터 빈집 정보 제공에서 매물 거래 연결까지 아우르는 온라인 플랫폼 '영암군 빈집은행'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풀고, 신뢰할 수 있는 빈집 정보를 제공해 주거·창업과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빈집은행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빈집은행은 올해 9월 마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분산돼 있던 빈집 정보와 지역별 실태를 누구나 한 곳에서 한눈에 편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온라인 포털에서 '영암군 홈페이지' > 주유서비스 > 모뎀보기 > 빈집은행'으로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빈집 리모델링 △빈집 개보수 △빈집 정비(철거)보상금 등 빈집 관련 각종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안내해 현재 소유자와 미래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플랫폼을 활용해 영암군은

1등급 빈집을 선별해 매물로 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 등록부터 거래 성사까지 과정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심 지역 빈집 매물이 새로 등록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신청 기능도 도입해 이용 편의도 높였다.

올해 12월까지 영암군 빈집은행에 등록된 빈집 매물은 총 7건이고, 이 중 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신환중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빈집은행은 플랫폼을 넘어 영암군 빈집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창구다. 빈집 소유자와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 빈집은행에 빈집 정보를 등록하고 싶은 소유주는 주택관리팀(061-470-2452)으로 연락하면 안내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행복 나눔 행복꾸러미' 추진

보성군은 지난 23일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숙)가 보성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취약계층 등 어려운 가정 150가구를 대상으로 '온기 나눔 행복 나눔 행복꾸러미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추운 겨울 취약계층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맞춤형 행복꾸러미를 만들었다.

행복꾸러미 상자에는 떡국, 간편식 6종, 라면, 두유, 과일 등 회원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50가구에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김미숙 회장은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은기 기자



담양군, '2025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성황리 개최

담양군은 지난 23일 담빛농업관에서 한 해 동안의 평생학습 성과를 집약한 '2025년 담양군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움의 온기를 나누는 곳, 담양군 평생학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참여자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은 공연과 체험, 전시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평생학습 과정을 통해 실력을 갈고닦은 5개 팀의 열정적인 발표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공예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흥군-맘스케어, 출산축하용품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장흥군은 사회적기업 언론사인 주식회사 맘스케어(대표 이금재)와 23일 군수실에서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육아용품 지원함으로써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시대에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맘스케어는 내년 1월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젓병, 수유패드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18만 원 상당의 더블하트 출산용품 후원한다. 이 외에도 앞으로 양 기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홍보와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산모·영유아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출산가정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